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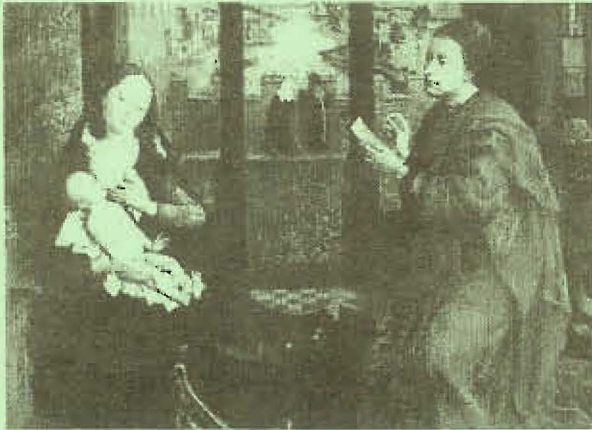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연중 제29주일
제31권 47호(가해) 2011.10.16

[묵상]



성모 마리아의 초상을 그리는 성 루카
<15c, 로히르 반데르 바이덴, 보스턴 미술관, 미국>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올라가기를 썩우기 위해 묻습니다.
하느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믿는
신앙인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유다인의 분노를,
반대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로마를 거스르는 반역죄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황제와 하느님을 경쟁관계에 놓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참되게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황제에게는 세금만을 바치면 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어서
하느님께는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모든 사랑을 바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위선자들의 올라가기를 멋지게 물리치신 예수님
하지만 황제의 것도, 하느님의 것도
모두 나의 것으로 하고 싶은 저희로 인해
당신은 여전히 올라가미에 갇혀 계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씩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파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유승례 아가다, 김판봉 안나 (생) 유지숙 그레이스 & 제프리 마티네스, 최기남 아교보 & 최옥희 대레사, 박지영 레지나
주 일 낮 미사	(연) 오진 베드로, 한병열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박홍운 & 최금옥, 한우석 요셉 & 윤영인 안나, 엄익환 안토니오, 이돈영 베드로 & 조관자, 박순용 요안나 (생) 오창애 안나, 이용식 베드로 & 이복임 엘리사벳,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정동호 하상 바오로 & 병옥 율리아 & 애나&린다&엘리스, 김성일 바오로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5,1.4-6

화답송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보다 경외로운 분이시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은 하늘을 지으셨네.○

○주님께 드려라, 못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 들고 그분 앞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제 2독서 데살로니카 1서(1 Thessalonians) 1,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2,15-21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시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02	214	188
봉헌	269	255	261
성체	283	283	281
파견	243	234	33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서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제섭니다.”

하느님 말씀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우리는 지금도 성령 강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지금도 그들의 언어로, 그들 자신의 문화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기간 내내 바오로 사도의 증언이 우리를 동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12차 정기 총회는, 이방인들의 위대한 사도의 탄생 이천년을 맞이하여 그에게 바쳐졌던 해에 열렸던 것입니다.

바오로의 삶은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특징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설교자로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의 강렬한 말들에 어찌 감동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1코린 9,23).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로마 1,16).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숙고할 때마다 우리는 바오로 성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바쳐진 그의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 복음서 서문을 안내서로

5). 저는 이 교황 권고를 통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작업이 교회의 삶에, 곧 성경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에, 전례와 교리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에,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경이 단순히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요한 복음서 서문(요한1,1-18)을 따라가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결과를 제시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서문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 가운데에 머무르신 그 말씀이십니다.(요한 1,14참조).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를 종합해 주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전승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동일시하는 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랐던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강생하신 하느님의 지혜이시고, 사멸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라는 깊은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고 믿었던” 요한이, 우리도 교회의 성사들을 상징하는 피와 물이 흘러나온 곳인 그리스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도록 이끌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요한 사도와 그 밖의 영감받은 저자들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자 합니다.<◆계속>

하느님의 것(Made in God)

1977년 미국은 보이저1호를 우주로 날려 보냈습니다. 보이저1호는 시속 약 6만 km의 속도로 34년을 날아가 지금은 지구로부터 약 178억 km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 우주선이 그리도 멀리 가지지만, 빛의 속도, 즉 시속 약 10억 km로 간다면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빠른 빛의 속도로 4년쯤 가야 다른 태양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태양이 약 천억 개 있는 천체를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은하계와 다른 은하계는 빛의 속도로 200만 년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천억 개나 있으며, 우주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200억년을 날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이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 통치 아래서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명쾌한 답변입니다. ‘돈의 주인은 황제일지 모르지만, 황제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지상의 권력자인 황제는 비교조차 안 되고, 결국 세상 모든 재화는 하느님 것이니 하느님 뜻에 따라 쓰이어야 한다는 속뜻입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사시는 예수님께 세상일은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고안하여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잘 들여다보면 ‘MADE IN GOD’가 적혀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백일홍, 소나무와 참나무, 나비와 풍뎡이, 강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갯난아기..., 공기와 물, 강과 산, 바다와 구름, 수많은 별 모두 ‘MADE IN GOD’입니다. 인간은 살아 출추는 나비 한 마리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당하게도 ‘내 것, 우리 것’이라

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느님께 대한 ‘소유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관리인이며, 우리 또한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연과 재화를 그분 뜻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잘 보존하고 재화는 골고루 나눌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재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느라, 권력 있는 사람들 밑에 줄을 서느라,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늘리느라 신경 쓸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투자하고, 그분을 공부하고, 그분과 친해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숨 한번 끊어지면 끝이고, 건강해도 지식이 없으면 유치하고, 똑똑해도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착하다 하여도 하느님을 모르면 자기 주인도 모르고,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 중요한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 공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느님을 찾으면 필요한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믿고 하느님 공부에 열중할 일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면 시작 이전의 시간은 무엇인가? 우주 끝까지 가면 그 바깥은 또 무엇인가? 생명과 죽음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니 참으로 사랑하면 우주와 인생의 신비를 알게 될까?”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래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을 독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제2회 본당 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

- 일시 : 11월6일(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농구장
- 대상 : 양업회, 성모회, 대건회, 자모회, 원서회(남,여), 배론청년회(남, 여)
- 경기방식 : 단체별 남녀 각각 한팀씩 총8팀 구성후 남성 여성경기로 리그전 진행
- 참가비 : \$50(단체)
- 상금 : 우승팀 \$150및 트로피, 준우승팀 \$50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마무리

지난 8월부터 본당의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양업회, 요셉회, 대건회, 성모회, 자모회, 안나회, 레지오마리아, 빈첸시오, 배론청년회에 이어 오늘 주일 **성령기도회**를 끝으로 단체 소개가 끝납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제대회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6일) 11시미사 후
- 장소 : 회의실(사무실앞)
- 제대회원 전체모임(점심식사와 함께)을 갖고자 합니다.
- 연락처 : 제대회장 오창에 안나 ☎(310)974-2857

◆ 10월 정기 본당 올드레이

- 일시 : 오늘 주일(16일) 11시미사 후
- 장소 : 친교장(점심제공)
- 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안나회/요셉회 가을 온천관광

- 일시, 장소 : 10월18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
- 회비 : 1인 \$20, 부부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샌들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 회장 ☎(310)738-4387

◆ 새 예비자를 봉헌 합니다.

시월은 목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본당 설립30주년의 해인 올해 이제 두번째 새로 예비자를 모집 합니다.

- 환영식 : 2011년 10월30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960

◆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김치병 수거합니다.)

- 판매 일시 : 10월29/30일(토요특전, 주일미사)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 토요특전(청년미사)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 자격 : 사우스베이 거주자로 신앙 깊은 청년 피아노반주자
- 문의 : 김기석 바오로 청년회 밴드부장 ☎(310)713-3329

◆ 지역사회 무료건강검진

- 일시 : 10월23일(주일) 낮 12시~오후 5시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2040 Artesia Bl. 토런스)
- 검진종목 : 종합양방/한방 검진, 유방암검사, 초음파검진, 정밀혈액검사 및 특별주문 혈액검사, 골다공증(실비) 등
- * 후원 : 수호천사보험, 월드메디칼 미션 ☎(310)324-815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16일(주일) : 토런스 동2반(우거지콩나물국밥 \$3)
- 10월23일(주일) : 토런스 서2반(열무보리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숙경	권태만	김관기	김교복	김대우	김양금
	김영정	강옥보	김원찬	김옥	김원호	김일선	김정엽
	김학경	김현숙	남명자	문두현	민순선	민형기	박상준
	박정희	반비오	송기철	엄세중	엄지선	오신재	오현희
	이귀분	이민상	이상철	이일길	이효세	이희영	이명
	전시웅	전정일	주영석	지경수	최수복	최재은	한연만
	한장환	한혁수	한길선례	영희	가보라	송마이클	
합계 : \$4,690							
미사헌금 : \$2,661							

성전헌금	강숙경	권태만	김관기	김교복	김대우	김양금	김옥보
	김옥	김원호	김일선	김정엽	김현숙	남명자	민순선
	민형기	박정희	반비오	엄세중	엄지선	오현희	이귀분
	이민상	이상철	이효세	이희영	이명	전시웅	전정일
	주영석	지경수	최수복	최재은	한연만	한장환	한혁수
	한길선례	영희	가보라	송마이클			
합계 : \$3,240							
주보광고후원 : \$250							

공지사항

◆ 주일학교 Lock-in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과 주님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 일시 : 10월21일(금) 오후 6시30분 ~22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성당
- 참가대상 : 6학년~12학년
- 준비물 : 슬리퍼, 세면도구, 재킷, 성경
- 문의 : 주일학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첫영성체반/전진반 학부모와의 만남

- 첫영성체반 : 10월23일(주일) 오전 10시30분 2학년교실
대상 : 2학년 학부모
- 전진반 : 10월30일(주일) 오전 10시30분 10학년교실
대상 : 10학년 학부모
- 지도 : 문밥티스타 수녀
- 문의 : 첫영성체반 이진원루시아 교무주임 ☎(310)780-8895
전진반 신동윤 빈센트 교사 ☎(213)500-9448

남가주 소식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2

- 일시 : 10월22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남 25세 여 23세 이상 미혼 가톨릭신자
- 장소 : 성 토마스성당(412 N. Crescent Way Anaheim)
- 회비 : \$50 *신청문의 : 김민정 켈리나 ☎(213)247-4341

◆ 남가주 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일시 : 11월5일(토) 오후 5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
- 퀴즈범위 : 모세 오경 * 선수 : 7명 * 상금 : 어마어마함!
- 본당문의 : 배론청년회장 곽수민 히메리오 ☎(310)944-4579

◆ 한인가톨릭 청소년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11월12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
- 주제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 대상 : 9학년~12학년 *참가비 : \$20(티셔츠, 점심 포함)
- 본당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성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동계 선교활동: 뉴올리언스

- 일시 : 2012년 1월1일~1월7일
- 대상 : 대학생/청년
- 신청마감 : 10월 23일까지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 * 문의 : ☎(323)734-4946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남명자 데레사 328-0847 10/14(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조혜정 마리아 213-703-8122 10/7(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0/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10/8(토) 오후6시 차이나부페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윤선희 로사 381-9489 10/17(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최정숙 수산나 320-0855	신성주 엘리사벳 850-0188 10/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0/13(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희경 크리스티나 213-458-3356 10/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0/15(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0/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예우세비오 377-0345 10/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2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택수 프란치스코 544-9532 10/2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윤혜영 클라라 902-5091 10/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구인 : Paramounttariff.com(사무직,풀타임/파트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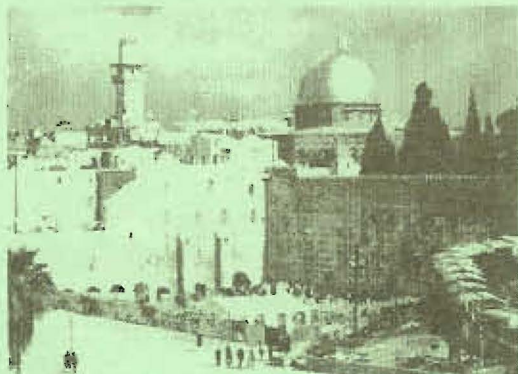
FMC.gov규정에 따른 세계유수의 회사임

* 자격 :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권/영주권자

* 이력서 e-mail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두 노인 이야기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 예핌 노인은 부자 농부였는데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태우지 않았다. 그는 매사에 엄격하고 야무진 성미였으며 일흔이 되었는데도 등도 구부러지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인 에리셰이 노인은 평범한 농부로서 젊어서는 목수 일을 했으나 나이 든 후로



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꿀벌을 치고 있었다. 그는 매사에 낙천적이었으며 성격이 명랑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몇 주일째 계속 걸었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물도 좀 마시고 싶었으나 예핌은 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한 농가에 이르렀을 때 에리셰이는 잠시 들어가 물을 얻어 마시고 갈테니 먼저 가라 이르고는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침 그때 그 집안에서는 온 식구들이 굶주림 끝에 돌림 병을 앓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에리셰이는 성지순례를 단념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로 했다. 그는 그집 식구들이 병고에서 일어난 후 먹고 지낼 식량과 땀감을 마련해놓고는 집으로 돌아온다. 혼자서 일찍 돌아온 것을 본 가족들이 의아해 물었으나 '나는 주님의 인도가 없었던 모양이다. 도중에 돈을 잃어버려서 디는 갈 수가 없었던단다.'하고는 농가에서의 일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한편 먼저 길을 떠난 예핌은 나무 그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잠시 졸고 있는 사이 혹시 그가 지나치지나 않았나 싶어 발길을 더욱 재촉했다.

성지에 도착한 그는 혼잡한 성당에 들어가 미사를 참례하려고 하는데 제단 뒤편에 있는 자기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모습 둘레에는 둥근 원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성지에서 그는 이와 같은 친구의 뒷모습을 세 번이나 보았지만 그에게로 밀치고 다가가면 그 모습이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순례에서 돌아온 예핌은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몸만 갔다 왔구나.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자기 의무를 사랑과 선행으로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하고, 이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혹여 나를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닐까. '몸만 갔다 온다는것'. 피정에서 돌아와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 역시 몸만 갔다온 것이다. 미사에 참례 하는 이 순간에도 정신은 딴 데 두고 몸만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이사 45, 7) 이처럼 영혼에 와닿는 하느님의 말씀을 몸이 아닌 마음속 깊이 담아본다.

◆김양희 레지나 / 수필가

이전 알아두세요!

하루중에 묵주 10~20단을 바치고 있습니다. 대략 5,6번에 나누어 바치고 있는데 이어 기도할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까?

하루의 시작과 잠깐의 여유까지 기도로 채우시는 형제님이 부럽습니다. 늘 깨어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닦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정성 어린 기도로서 종일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충분히 주님께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만큼 묵주기도를 하면서 의문 나는 점들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언제나 다시, 이어 바쳐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방법과 철칙에 묶이기보다 진심으로 바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살아 계시는 주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응답하시는 그분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종일 사도신경에 마음이 쏠려서 사도신경만 외워도 그릇되지 않는다는 애깁니다. 기도책이 없고 묵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기도에서 헛수나 시간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해 그분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고백이 담길 것을 고대하십니다. 하여 기도하는 이에게 "마음에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골로 2, 2) 하십니다. "저 위에 있는것을 추구"(골로 3, 1)하도록 이끄십니다. 기도의 의무에 속박되지 않는, 참 자유 안에서 충실하기 바랍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